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 연구 :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우상준¹, 하윤주², 김은아^{1*}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²

Convergence Study on Impact of Career Barrier on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Sang-Jun Woo¹, Yoon-Joo Ha², Eun-A Kim^{1*}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Ho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분석은 G시와 J도에 위치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영향력과 진로성숙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성숙도와 부적상관을 보였지만, 취업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35%, $F=109.89, p<.001$)을 미쳤으며,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유의($z=12.24,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들이 진로장벽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가 증가될 위험성을 진로성숙도가 완충시켜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역량개발과 자존감 관리 및 친구 등의 지지체계를 활용한 상담과 더불어 간호학과에 특성화된 맞춤형 취업지도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 간호 대학생,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 between carrier barriers and senior nursing students's jobs seeking stres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ver 208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three nursing schools in G city and J province. The research methods examined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with difference of carrier maturity. As a result, career barrier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areer maturity bu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s seeking stress. Also, career barri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jobs seeking stress(35%, $F=109.89, p<.001$),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z=12.24, p<.001$). According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career maturity could buffer the risk of jobs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 from career barriers. In conclusion,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to lower career barriers and improve career maturity in order to reduce jobs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develop career guidance information system that, is specialized in nursing course as well as counselling that utilizes individual ability development, self-esteem management and friend's system.

Key Words : Convergence, Nursing Student, Career Barrier, Maturity, Jobs Seeking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Eun-A Kim(eakim@dsu.ac.kr)

Received May 15,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ne 29,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1. 서론

전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도래하였고, 그 여파가 고용에 미칠 영향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년 안에 1800만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지속되어[1],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취업전망 또한 더욱 어렵게 예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여 안정된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 이와 같은 어려운 사회 환경은 생애 첫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과도한 경쟁과 함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3],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상의 문제까지도 겪을 수 있다[4].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타과에 비해 학업량이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에서의 환자 간호에 대한 불안감 및 책임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이와 더불어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간호사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취업률이 타과에 비해 비교적 높을지라도 이른바 상급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을 갖추는 등의 철저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기에[3],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대학의 학위과정은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추후 사회에서 겪을 많은 일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전공분야를 확고히 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5]. 이러한 진로 준비 과정동안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지각하는 것이 진로장벽이고, Crites[6]은 진로장벽을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적요인은 자신감의 결여, 소극적인 태도 같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 외적요인은 교육기회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취업스트레스를 증가[7]시키는 변수이고,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유의

미한 변수[8]로 밝혀진바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진로장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진로성숙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직업선택에 대한 책무감을 가지고[9], 본인의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이 학위과정 동안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장애물인 진로장벽들을 극복하고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중심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대부분 임상간호사 한 분야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추세로 타과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과 준비과정이 다소 부족하여, 조기이직률로 이어지는[10]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들이 학위과정동안 전공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개인의 특성도 고려한 진로선택과 이에 따른 진로지도[11] 및 준비의 체계적인 진로성숙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사회에서 전공관련 직업을 지속하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진로장벽,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한바,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도 높다는 Park과 Lee[7], Jeon[8]의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뿐만 아니라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 정적 관계 및 영향[5,12]을 보인다는 결과와 이와 상반된 부적 관계 및 영향[13,14]을 보인다는 연구들로 그 결과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고, 진로장벽으로 인한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개입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감소효과 뿐 아니라 학위과정 동안 이수한 전공에 따른 맞춤형 취업준비 및 지원 전략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 대학에서 연구자가 편의추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표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4학년 학생 214명으로,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을 선정하여 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당일에 수거하였고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크기는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0.25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197명으로 예측되었다.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총 21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208부(97.2%)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장벽

진로장벽 도구는 Kim[15]의 도구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 검사(Korea Career Barrier Inventory: KCBI)이며, 총 45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1$ 이었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도구는 Crites[16]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Kim[17]이 변안한 척도에서 Kim[18]이 태도척도만을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6$ 이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기초로 Hwang[19]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Kang[20]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8$ 이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는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거쳐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연령분포는 20-24세가 173명(83.2%)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29명(13.9%)순 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80명(86.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자가 28명(13.5%)이었으며, 학교성적은 중위권 134명(64.4%)으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하위권 53명(25.5%), 상위권 21명(10.2%)순 이었다. 간호학과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06명(51.0%), '보통이다'가 60명(28.8%) 순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f the subjects (N=208)

Variable	Categories	N	%
Age	20-24	173	83.2
	25-29	29	13.9
	30-34	6	2.9
Sex	Male	28	13.5
	Female	180	86.5
Academic achievement	High	21	10.1
	Middle	134	64.4
	Low	53	25.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7	13.0
	Satisfied	106	51.0
	Average	60	28.8
	Dissatisfied	15	7.2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3.4 대상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탐색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2. Differences of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and jobs 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Jobs seeking stress		
		Mean±SD	t / F	Scheffe	Mean±SD	t / F	Scheffe	Mean±SD	t / F	Scheffe
Age	20-24	2.49±.46	1.732		3.36±.33	.906		2.48±.61	.332	
	25-29	2.32±.44			3.36±.28			2.38±.62		
	30-34	2.40±.53			3.54±.24			2.39±.36		
Sex	Male	2.32±.51	-1.78		3.43±.28	1.325		2.28±.55	-1.67	
	Female	2.49±.45			3.36±.33			2.49±.61		
Academic achievement	High	2.31±.40	1.547		3.46±.35	2.689		2.28±.70	2.142	
	Middle	2.47±.45			3.39±.30			2.44±.59		
	Low	2.52±.50			3.29±.32			2.58±.60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2.20±.42	7.110 ^{***}	d>c, c>a	3.53±.27	9.970 ^{***}	a>d	2.24±.62	4.586 ^{**}	d>a
	Satisfied ^b	2.42±.43			3.43±.31			2.39±.59		
	Average ^c	2.62±.48			3.25±.29			2.60±.58		
	Dissatisfied ^d	2.66±.36			3.13±.34			2.80±.65		

^{**}p<.01 ^{***}p<.001

제 변수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공통적으로 전공만족도이었으며, 각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에 대한 전공만족도(F=7.110, p<.001)의 차이는 불만족인 군이 보통인 군보다, 그리고 보통인 군이 매우만족인 군보다 진로장벽 정도가 높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전공만족도(F=8.712, p<.001)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매우만족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전공만족도(F=4.586, p<.01)의 차이는 불만족인 집단이 매우만족인 집단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3.3 대상자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장벽은 진로성숙도(r=-.590, p<.01)와 역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r=.594, p<.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와 (r=-.446, p<.01)와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and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1		
Career maturity	-.590 ^{**}	1	
Jobs seeking stress	.594 ^{**}	-.446 ^{**}	1

^{**}p<.01

Baron과 Kenny[21]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2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진로장벽을 통제하고 난 후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장벽,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장벽 전체 점수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 전체 점수에 대한 영향이 유의(β=-.59, p<.001)하였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장벽 전체 점수가 종속변수인 취업스트레스 전체 점수에 대한 영향이 유의(β=.59, p<.001)하였다. 3단계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을 함께 투입했을 때 진로장벽(β=.51, p<.001), 진로성숙도(β=-.15, p<.001)에 유의하였고, 2단계(β=.59)에서 보다 3단계(β=.51)에서 줄어들었다.

또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진로장벽 단독으로는 35%(F=109.89, p<.001)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진로성숙도가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between carrer barriers and jobs seeking stress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
1	Career maturity	Carrier barriers	-.41	.039	-.59***	-10.48	.35	109.89
2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78	.074	.59***	10.60	.35	112.34
3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67	.091	.51***	7.37	.37	59.43
		Career maturity	-.28	.130	-.15***	-2.14		

*** $p < .001$

37%($F=59.43, p<.001$)로 증가되어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이 통제된 후에도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12.24(p<.001)$ 로 산출되어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위한 효과적인 진로 상담 및 지도방안을 마련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위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들을 분석한바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군이 보통인 군보다, 그리고 보통인 군이 매우만족인 군보다 진로장벽 정도가 높았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매우만족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군이 매우만족인 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즉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장벽정도,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22],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선행연구[2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Yoon[24], Cho등[2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감소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한 결과들이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고, 진로장벽 정도, 취업스트레스

가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과 동시에 학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진로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26], 특히 간호학과와 같은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전공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무전공성을 지닌 계열로,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로 볼 수 있다[27].

본 연구의 결과를 주목하면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고등학교 진로교육 시 간호학과와 진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학과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선 간호학과에서는 입학 후 간호학 전공에 대한 직업적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교과와 비교과 과정 등을 통해 간호 전문직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로 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전략 개발 모색[27] 및 간호학과 교과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법의 개발 등의 방안 제고로 전공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Choe와 Kim[28], Shin[29]의 연구에서 성적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바, 추후 성적군의 분류를 학점 구간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진로장벽을 감소시키고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가 정적관계를 보였던 Park과 Lee[7], Jeon[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 부적관계를 보여준

Song과 Jeon[3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에 진로장벽을 감소시키기 방안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19]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기이해, 리더십개발, 취업역량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로개발 프로그램 등을 도입 및 적용하여 자존감 및 역량 개선을 통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를 보여 Lee와 Lee[13], Ko와 Sim[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취업캠프와 실무자의 실전면접을 활용한 진로능력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 시키는데 효과를 보인 Kim[31]의 연구 및 창의수업활동을 통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의 결과를 보인 Kim과 Choi[32]의 연구에 근거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취업역량 프로그램 내용구성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로장벽을 낮게 인지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에 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된바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방안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및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해보면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33,34]을 주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또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7,8]을 주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진로장벽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할 때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기존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탐색 해볼 필요가 있었다.

기존 연구를 고찰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해 Ahn과 Kim[35]은 중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간호학문 고유의 전문직관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전공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직업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내 취업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위의 내용을 반영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의 진로성숙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연구[36]에서

대학생의 경우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이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족보다도 친구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인지하는 진로장벽 또한 개인의 자존감 또는 자아개념과 많은 밀접성이 있기에, 간호대학생이 우선적으로 자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37]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지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물로 지각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취업정보 프로그램 및 진로관련 웹사이트에서 주로 제공되는 기존의 정보들은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는 간호학과 혹은 보건계열 만의 특성화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13]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및 학과차원에서 기 졸업자들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집 발간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한 폭넓은 취업분야 등의 정보 및 맞춤형 준비방안을 제시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융합적으로 연구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감소효과 뿐 아니라 학위과정 동안 이수한 전공에 따른 맞춤형 취업 준비 및 지원 전략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졸업예정자가 진로장벽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가 증가될 위험성을 진로성숙도가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역량개발과 자존감 관리 및 친구 등의 지지체계를 활용한 상담과 더불어 간호학과에 특성화된 맞춤형 취업지도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

의추출하여 측정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일반적특성에서 의의가 있었던 전공만족도와 제 변수들간의 후속연구 및 전공만족도 향상방안 관한 면밀한 제고와 함께 추후 타 보건계열 및 학년별 특성을 구분한 비교 및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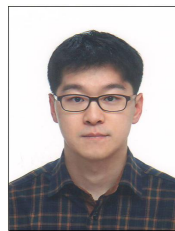
REFERENCES

- [1] Hankyoreh. (2017. 1. 2.) *The 'Job Shock'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7059.html>
- [2] H. C. Cho. (2013).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4(1), 157-184.
- [3]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 H. J. Park.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22-131.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5.24.2.122>
- [4] I. S. Lee & J. Y. Cho. (2011). Employment stress,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2), 745-758.
- [5] S. J. Lee & J. L. Lee. (2015). The effect of job search stress on career maturity among the students of security services. *Korean Journal of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42, 179-203.
- [6] J. O. Crites.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 Graw-Hill.
- [7] M. K. Park & H. L. Lee. (2008). The influences of career barriers on jobs seeking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5), 239-259.
- [8] C. Y. Jeon. (2013).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1), 1-14.
- [9] J. J. Benshoff, S. A. Kroeger & V. A. Scalia. (1998).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143(3), 40-44.
- [10] H. Y. Kim, Y. K. Song, G. H. Yoo, H. N. Lee, G. K. Yoo, S. J. Lee & E. K. Yoon. (2012).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urnover risk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using causal ma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Conference*, 10, 286-286.
- [11] D. S. Choi. & C. Y. Jung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otivational factors and attach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2(1), 115-143.
- [12] Y. J. So & J. S. Park. (201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Korean Employment career research*, 6(4), 23-44.
- [13] C. J. Lee & J. K. Lee.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tress among students of health care and social work. *Social Science Studies*, 38(3), 319-339.
- [14] G. P. Ko & M. Y. Sim. (2014).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7(1), 19-38.
- [15] E. Y. Kim. (2002).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219-240.
- [16] J. O. Crites.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er's manual (2nded.)*, New York: Mc Graw-Hill.
- [17] H. O. Kim & C. G. Kim.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level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8(1), 143-160.
- [18] B. H.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19] S. W. Hwang.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 master's dissertation, Busan: Dong A University.
- [20] Y. R. Kang. (2006).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Seoul: Dan kook University.
- [2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2] M. J. Chae & H. J. Jung. (2016). Mediating effect of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213-222.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3.213>
- [23] G. W. Nam & G. S. Jo. (2017).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ense maturity of students of department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497-50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1.497>
- [24] I. H. Yoon. (2016). Majoring in social work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s Stress : Focusing on the latent mean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308-3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308>
- [25] E. Y. Cho, J. A. Kim, J. Y. Kim, H. J. Kim, E. S. Ra & H. Y. Lee. (2016).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1), 35-43.
- [26] J. E. Kim. (1997).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Seoul : Jip Moon Dang.
- [27]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https://doi.org/10.221C4M.201.4.11>
- [28]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 H. J. Park.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22-131.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5.24.2.122>
- [29] S. H. Shin. (2012).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3), 217-225.
- [30] B. K. Song & J. Y. Jeon.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 235-264.
DOI: <https://doi.org/10.12653/jecd.2013.20.1.0235>
- [31] Y. H. Kim. (2013).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817-82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817>
- [32] H. H. Kim & Y. H. Choi. (2015). Effects of creativity instruction activities on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NFTM-TRIZ creativity educ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277-28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2.312>
- [33] D. S. Park & E. Y. Yoo. (2016). Effect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13-3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313>
- [34] H. H. Kang. (2015). Effect of career barrier on polytechnic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8(1), 59-78.
- [35] S. M. Ahn & K. H. Kim.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55-56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555>
- [36] M. N. Jung & J. E. Roh. (2016).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27(3), 133~162.
- [37] S. H. Kim & M. J. Kim. (2016).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407-4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4.407>

우 상 준(Woo, Sang Jun)

[정회원]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의료경영

- E-Mail : woosj@dsu.kr

하 윤 주(Ha, Yun Ju)

[정회원]



- 2005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1년 1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융합, 기초간호, 성인간호, 보건의료법
- E-Mail : hyj72@honam.ar.kr

김 은 아(Kim, Eun A)

[정회원]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초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eakim@dsu.kr